

# 2015 최악살인기업 '현대건설' 선정

✎ 홍미리 기자 | ㉠ 승인 2015.04.13 15:06

## 시민선정 최악시민살인기업 '청해진해운' 최악 살인기업 '삼성전자'



▲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과 지난 10년 간 가장 위험한 50대 기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사진=노동과세계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에 현대건설이 선정됐다. 2014년 한 해 동안 현대건설에서 총 1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건설업 부문에서는 현대건설이, 제조업 부문에서는 지난해 8명이 사망한 현대중공업이 각각 2015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뽑혔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4월 13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 참사 1주기와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10년 맞아 지난 10년 간 가장 위험한 50대 기업을 선정했다. 산재사망 50대 기업 중 현대건설(110명 사망)이 1위, 대우건설(102명 사망)이 2위, GS건설(101명 사망)이 3위, 우정사업본부(75명 사망)가 4위, 현대중공업(74명 사망)이 5위를 각각 차지했다.

지난 10년 간 최악의 시민살인 기업은 청해진해운, 옥시 레킷 벤키저, 코오롱,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가 상위를 기록했다. 사망자 숫자 기준으로 보면, 지난 10년 간 최악의 살인기업은 청해진해운과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2012년에 이어 2015년에도 가장 많은 산재사망자 수를 기록했으나 어떤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502명의 시민들이 선정한 최악의 살인기업은 삼성전자와 청해진해운이었다. 시민살인기업으로 69%가 청해진해운을 꼽았고, 노동자 살인기업으로는 46.7%가 삼성전자를 선정했다. 산재사망 노동자가 가장 많은 현대건설보다 삼성전자를 꼽은 것은, 글로벌기업인 삼성전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데 대한 공분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최측은 분석했다.

지난 10년 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무려 22,801명에 달한다.

유민아버지는 “유민이의 고귀한 생명이 여기 광화문에서나마 꽃처럼 피어나라고 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을 약속한 후 지난해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있었다”고 말하고 “모두에게 이롭고 필요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더 이상 희생이 필요하냐”면서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무책임에서 비롯됐고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한 사회의 전반적 문제였으며,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취급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지난 10년 간 노동자와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기업들을 처벌해야 한다”면서 “쓰레기 시행령을 폐기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영원히 꽃으로 피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년에 2000명이 죽는 이 전쟁터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진=노동과세계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저는 이곳을 세월호광장이라고 부른다”고 말하고 “어제 고2 제 딸이 왜 외국 배우가 세월호를 기억하라고 기억의 문을 만드는 거냐고 물었을 때 저는 부끄러워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다”면서 “세월호 참사 1년이 되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남미 순방을 간다는데 지난해 5월 17일에도 국민이 분노하는 가운데 도망치듯 중동에 간 걸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우리가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발표하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것인데 대형 산재사망은 여전히 줄지 않고 속절없이 계속된다”고 말하고 “1년에 2000명이 죽는 이 전쟁터 같은 현실에 맞서 민주노총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10년

기업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 위험작업 중지권 보장!”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 안전규제 완화 원상회복!”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 유해작업 도급금지!”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 산재사망 처벌강화 입법!”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조민근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발언에 이어 강문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는 기업살인법이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세월호 등을 의식해서 정부가 기업살인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경영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막대한 벌금과 과태료, 영업정지, 기업 해체 수준의 처벌을 기업에게 안기고, 정책적 판단에서 오류를 범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15년 건설업 부문 최악의 살인기업은 현대건설, 제조업 부문은 현대중공업이다. 사진=노동과세계



▲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하며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 등 단체 대표자들은 현장에서 일하다 죽어간 노동자들 영정에 국화꽃을 바치며 끔찍한 산재사망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 기업살인법 제정으로 멈추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10년 간 산재사망 노동자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생명보다 안전보다 우선인 것은 없음을, 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규제 완화, 민영화 정책은 중단돼야 함을, 위험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면서 안전관리에는 투자도 예방과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 재벌 대기업의 행태는 강제돼야 함을 말하고 있다”면서 “또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엄중 처벌돼야 하고, 이를 위해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말하고 “오늘 선정된 최악의 살인기업은 노동자 시민의 참여로 선정됐다”면서 “선정에 참여한 그 탄식과 분노를 모아 ‘안전은 모든 인간의 존엄한 인권’임을 선언하면서 더 힘차게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10년 간 산업현장에서 22,80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윤만 앞세우는 기업의 무책임 때문에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떨어져 죽고, 폭발사고로 죽고, 골병, 직업성 암으로 죽어간다. 사진=노동과세계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